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김은하¹·임연옥²·박경숙³·김남영³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¹,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², 간호대학원 박사과정³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Multiple Role Experience of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Kim, Eun Ha¹ · Lim, Yeon Ok² · Park, Gyung Sook³ · Kim, Nam Young³

¹Full-Time Lecture,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²Full-Time Lecture,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³Doctoral Course Student, Graduate School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graduate student women with children fulfilling multiple roles and to generate a substantive theory. **Methods:** This study uses the grounded theory method based on Strauss and Corbin(1988)'s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graduate student women who had children aged three of older. **Results:** The core category of this research is 'Role balancing for self-generativity'. Based on the core category, three types of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were found. They are 'concentrating on graduate-work' 'postponing graduate-work' and 'adjustment between two roles' **Conclusions:** Through understanding the married women's multiple roles experience process, there can be a basis for making a women's health system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 Also, this research is to generate a substantive theory which can helps to change social perspectives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women who will contribute in Korean society as professionals.

Key Words : Multiple roles, Graduate student, Married women, Grounded theory metho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장기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보건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학위를 취득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두드러진 특성은 여성 학위취득자 비율의 증가로 2003년 석사학위 취득자 66,720명 중 여성이 27,593

명으로 41.35%, 박사학위 취득자 8,008명 중 여성이 1,952명으로 24.37%에 이르렀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3). 또한 간호, 보건과 복지의 인간 돌봄(helping professional) 직업은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이들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은 여성대학원생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원 진학은 학문의 심화뿐만 아니라 학문영역 내에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안정적인 직업의 취득 등의 의미를 가지

Corresponding address: Kim, Eun Ha,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4-1 Bugog 3-dong, Geumjung-gu, Busan 609-323, Korea. Tel: 82-51-510-0831, Fax: 82-51-510-0838, E-mail: hake1114@cup.ac.kr

투고일 2007년 8월 21일 심사외뢰일 2007년 8월 21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12일

는 반면에 진학이전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학생으로의 역할을 선택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부담감이 따른다. 따라서 자녀를 둔 기혼의 여자대학원생은 한 사람의 여성이 아내, 어머니, 학생 등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역할 수행자가 된다. 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직장여성의 역할갈등과 역할과중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0년대부터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기혼여성의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춰오고 있다(Ellen, 2003). 기혼여성의 다중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다중역할의 부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입장, 그리고 절충적인 입장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은 남자와 달리 여러 역할이 동시에 돌출하는 것에 대해 순차적으로 역할수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역할수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역할긴장과 역할 스트레스를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다중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Park, 2003). 이에 반해 몇몇 학자들은 역할기대, 역할정체성, 역할몰입 이론(Ryu, 1998: Kandal, Style, & Hughes, 1990)을 제기하면서 다중역할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점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Park과 Lioa(2000)는 한국의 기혼 여교수와 전업주부 100명을 비교하여 역할긴장도와 역할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혼 여교수들이 전업주부에 비하여 더욱 높은 역할 만족도와 역할긴장도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여성의 다중역할 수행에서 발생하는 역할긴장과 만족도는 독립적인 차원에서 공존하는 경험임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미국 중서부의 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998년에서 2001년에 실시된 연구(Nerad, Amstron, & Gupta, 2002)에서는 대상자의 60%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학원 과정의 학업 성취에 있어서 역할 긴장을 경험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 돌봄 역할과 학업 성취 역할 중 학업 성취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달성하였음을 보고하여 절충적인 입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골고루 배분하여 역할 간 균형을 잘 잡아 모든 역할에 몰입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었다(Marks, Huston, Johnson, &

MacDermid, 2001). 이러한 연구와 달리 Napholz(2000)은 미국 인디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기혼의 인디언 중년여성들은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역할들 간에 균형을 맞추었고 다중역할 수행 시에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각 역할들을 통합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취업여성의 다중역할갈등에 관한 연구(Jeon, 2006: Yoon, 2003)가 있을 뿐 여성의 관점에서 그들의 다중역할에 대한 경험을 설명해주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경험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여성이 상황에 따라 여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느낌, 사고, 지각에 대해 기존의 외부자적 관점보다는 여성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수행 경험의 과정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거이론방법은 현장에서 존재하는 연구현상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비교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유도된 이론으로 그 특성은 핵심변수나 범주,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여 이론의 단계와 함께 엮여가고, 추상적이지만 개념과 관계적 진술을 통해 서술적 자료의 통합을 명확히 밝힌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Morse, 2005). 또한 근거이론은 연구현상의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수집된 자료를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분명한 단계를 거쳐 경험의 실제적 개념들을 분석하여 개념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자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과정동안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수행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 그 상호작용으로 도출된 결과는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은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Strauss와 Corbin(1998)은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기법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자료수집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론적 표본추출과정을 적용할 것과 참여자의 인터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한 코딩, 메모와 도표를 활용함으로써 경험과정에 대한 전체 이야기 윤곽을 도출하고 실체이론 모형을 구축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체계화 분석기법과 절차를 따라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경험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자 Strauss와 Corbin의 근거 이론을 적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대로 이론적 표본추출을 사용하여 다른 여러 세팅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반대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하는 것(Corbin, 2004)과 이론적 문헌고찰을 통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에서는 서울 소재 E 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평소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학생과 그 학생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비교적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 2차 참여자 선정은 1차 면담에서 드러난 범주의 속성 및 차원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소재 E 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미혼의 여자 대

학원생 1명 및 참여자의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각각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기혼여자 대학원생 3명을 선정하였다. 3차 연구참여자는 대학원생의 면담결과 졸업 후의 진로, 남편, 자녀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석·박사과정을 졸업한 시간강사 1명, 전임교수 1명, 전업주부 1명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인이 있는 전임교수 1명 및 자녀가 없는 기혼의 대학원생 1명 등 총 5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11명이었다. 연구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범주의 속성을 발달시키는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론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수업이 끝난 후 학교 근처 커피숍 혹은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었고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채택하여 면담 전에 미리 일정한 질문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고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들이 대학원생으로서 다중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사건이나 사실들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지?’, ‘경험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지 말해주세요?’ ‘대학원 과정동안 동료들과 교수와의 관계는 어떤지?’, ‘평소생활과 학기 중의 생활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였는데 1차 연구참여자의 면담은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집중되었고 제 2차 연구참여자와 제 3차 연구참여자의 면담은 2005년 3월과 4월까지 이루어졌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ng coding)의 절차를 따라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핵심범주를 발달시켰다. 개방코딩에서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였다. 이때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따오는 방식에 따라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비교하여 좀 더 추상화된 범주를 도출하였다.

축 코딩에서는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이 서로 연결되고 교차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역할 기대치 조정하기’라는 중심현상과 ‘가정, 학교, 경제적 상태’라는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를 둔 기혼여자 대학원생들은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자녀, 학교동료, 지도교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 기대치 조정하기를 경험하며, 이를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밝히기 위해 이야기 윤곽을 작성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자기 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심범주와 범주들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해 역할의 균형 맞추기의 종류, 원인, 수용방식별 특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와 기존 연구의 비교 검토를 통해 실제이론으로서의 ‘자기 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동료 박사과정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각 코딩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과 참여자들을 다시 만나서 분석한 코딩 과정을 재 확인받는 작업을 거쳐 지속적인 비교와 수정 및 재수정이라는 분석 과정을 거쳤다.

5. 윤리적인 고려와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에 대해 윤리적인 고려를

하여 익명을 사용할 것과 인터뷰 한 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비밀 유지와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을 마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주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면담기술은 자료수집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중역할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자 자신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고,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여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다수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

III. 연구결과

1. 범주화 및 패러다임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 절차를 통해 찾아낸 개념을 설명하고, 유사한 개념들끼리 무리지어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좀 더 추상화하여 상위범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들 범주화된 개념들을 설명하는 중심현상으로 추상화시키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을 원인, 맥락, 중재적 조건들로 하여 각 조건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 범주를 결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1) 인과적 조건

(1) 자기생성의 욕구

학문의 선호, 미래에 대한 투자, 자기발전, 자신의 길에 대한 욕심의 하위범주를 묶어 범주화하였는데, 이는 예술작품이나 저서 출간, 자녀 성장을 위한 노력,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역할 성취를 통한 자기에 대한

창조의 욕구로 보아 Erickson(1968)이 처음 사용했던 ‘자기생성(self-generativity)’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기생성의 욕구로 추상화하였다. 참여자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자기발전’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면서이었고,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학문적인 면에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고, 남들과는 차별되고 현재보다 좀 더 긍정적인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벌중심 사회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투자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만약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장사하는 일이였다면 전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가치관으로는 그래요.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뭔가 내가 알아간다는 그런게...종조(참여자 10).

우리나라 특히, 석사와 박사졸업하면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를 계속한다면 ***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일하는데 있어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서 내가 무슨...내가 머를 거느리고 굴림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나의 능력을 믿어줄 수 있는 하나의 외투라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 9).

(2) 여성상 변화에 대한 수용

남아선호사상에서의 탈피,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변화의 하위범주들이 있었다. 참여자들의 가족은 남아선호사상에서 탈피하여 여성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높은 학력을 갖추게 되면 현재의 조건보다 좀 더 나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참여자들 자신도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내가 가면 내가 집에 있는 것 보다 활동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 석사 할 때는 완전히 하지

마라 반대는 안하셨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나 지금은 안그러서 해야지 할 것 다하고 나서 사회생활 해야지. 요즘은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예요. 배우는 것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배워야 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배워도 안되고 한 발 더 앞서가야 된다(참여자 3).

2) 중심현상: 역할기대치 조정하기

시간의 절대 부족, 완전을 추구함, 주부역할 요구, 학생의 역할요구, 자녀양육역할 요구, 병행의 묘미와 같은 하위범주를 보였는데 대학원에 진학한 참여자들은 학생의 역할과 기타의 다른 역할을 동시에 잘 해내기를 원하고 있었다. 다수의 역할을 감당하려다 보니 시간과 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다수 역할들의 비중을 생각하여 역할 수행시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부터 수행하였지만 학업을 소홀하게 되거나 가정역할을 소홀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면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병행해 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다녔다.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는 특정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에 따라 사회성원들이 생각하는 권리와 의무 특전과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인지적인 개념(Ryu, 1998)으로 참여자들은 역할 수행정도에 대한 기대치를 이전보다 낮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시킴으로써 다중역할을 수용해나가고 있었다.

조금씩, 조금씩. 애들은 큰 문제는 없지만 내가 막 공부도 못 봐주고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다니면서 뭐.. 오르다 뭐 그런 거 운동시키고 그런 거 못해주는 거. 그런게 있고. 그런 다음 남편은 내가 써포트를 짭 해줘서 해주면 훨씬 더 우리 신랑이 성공을 할텐데.. 그 써포트를 못해준다는 거 사실은 저도 다른 엄마들의 아이들과 비교가 되거든요(참여자 8).

우선순위는 가정이야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남편이나 애들이 다 희생되어야야 우린 그런걸 못 본척해야 해라고 하는데 그게 머리에선 하는 얘기지 가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가정이 우선이지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로 가슴에선 가정이 우선이 아니거든 시간 투자와 에너지 투자 한거를 다 보면은 사실 가정은 사실 조금이고 내 일이 비중이 더 많았죠..(참여자 10)

3) 맥락적 조건

(1) 자녀의 성장 단계

자녀의 독립성, 자녀의 방해, 자녀에 대한 육아부담, 자녀연령의 변화의 하위범주가 있었는데 참여자들이 대학원 학위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떠한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참여자들이 엄마로서 자녀에게 관여하는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의미하였다.

그 마음. 엄마 맘에 마니 속상하지. 엄마가 바쁘다고 너 돌봐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한 거 알지? 엄마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한 두세 가지정도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진짜.....있어... 참 이상한 게 내가 분주하면 애도 분주하고 내마음 들떠있으면 애 마음도 들떠있어(참여자 1).

만약에 결혼해서 애가 있다면 애를 어느 정도 키운 담에 해라. 나는 어느 정도 애를 묵욕시키고 밥 먹여야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건 엄마로써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대적인 것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결혼했다면 어느 정도 자기관리....초등학교. 엄마가 공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정도 아님 4학년까지 키워는 담에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참여자 9).

(2)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참여자들은 주로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다중역할 수행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하위범주로 힘든 경험, 지치고 소진된 느낌, 신체적으로 피곤함, 체력이 나빠짐을 인식함, 질병이 생김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가벼운 감기, 두통이 지속되었지만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임시적인 처방을 받을 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신체도 정신도 휴식할 수 있는 여유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은 점차로 나빠지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 후 체력이 절대적으로 악화되면 역할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몸도 힘들고 그 몸도 일단 판대로 움직이지않아요. 항상 피곤하고 나이도 들어서 정말 막 피곤하니까 눈알도 아프고 정말 피곤한데도 네 잘 때까지 뭔가를 하니깐 몸이 힘들죠. 몸이 힘들면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 어깨가 아프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렇지. 건강은 건강 안 좋지. 그래도 할 일이 있으면 지금정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참여자 5).

4) 중재적 조건

(1) 가족의 지원

하위범주로 지지적인 남편, 내편이 되어주는 남편, 남편의 방관적 태도, 친정의 지지, 도와주지 않는 친정, 시댁이 양해해줌, 친정과 시댁의 협조가 있었는데 참여자들에게 남편은 1차적인 지원체계로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지지와 다중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일부 남편들은 아내의 진학에 대해 반대하였거나,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이 경우 참여자들은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였다. 또한 친정과 시댁은 2차적인 지원체계가 되어 자녀양육과 관련된 실질적 지원은 친정에서 담당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댁은 대학원진학을 허용하고 가사를 맡아줄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타이핑도 쳐주고 내가 바쁘면은 인터넷에서 논문도 프린터해주고 내가 줄거여 준것 타이핑 쳐주고.. 영어해석도 도와주고 하여튼 왜일인가 싶을 정도로서 포트를 해주다가...근데 대학원 공부를 할려면 탄 도움도 필요하지만 신랑도움이 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남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지. 내가 시간을 최대한 절약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참여자 5).

네 친정엄마가 같이 한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앞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해요. 예전에는 안스러웠는데 지금은 나도 편하고 애들도 내가 없어도 할머니와 고모와 삼촌이 있기 때문에 재밌고 든든한 거예요. 엄마가 또 올 거란 생각에 겁을 안 먹었어요(참여자 2).

(2) 학교의 배려

교수의 이해 없음, 동료들의 지지, 서먹한 동료관계의 하위범주가 있었는데 참여자에게 지도교수와 동료 학생들의 배려는 학업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임이 확인되었다. 수업에 대한 부담이 컸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과제나 실습 또는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팀 단위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동료들의 이해와 배려가 다중역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또한 과제 제출 혹은 논문 제출 시에는 지도교수의 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애를 있어서 더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애가 있는 사람과 애를 안 가진 사람이 똑같이 대한다는 게 좀 힘들죠. 애를 가졌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자나깐 여자를 더 배려해줄 것 같은데 누구나 다하는 임신이고 출산인데 뭐 특별한 것이 있는나 이런 식인거죠(참여자 1).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가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의 분위기가 너무 아닌 거예요.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 자기 소 그룹들 이외에는 인사를 안 받아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대화도 단절하고(참여자 10).

(3) 재정적 지원

참여자들에게 자녀양육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긴 했지만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했다. 하위범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학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고 학비를 비롯하여 학업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육아 및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모두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남편이나 친정 또는 학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학업의 지속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경험하였다.

요즘에는 좀 쫓들리지 내가 용돈쓰기가 아주 버겁지. 시간 강의료가 없으니까 그거 이외에는 그런대로 지난학기 등록금은 납부했으니까 다음 학기가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는 장학금을 조금 받아 볼까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 장학금 받으면 프로젝트를 할려고 하는데 뭐 있어 미래까지는 못 내다봐(참여자 4).

5) 작용/상호작용 전략

(1) 우선순위 매기기

하위범주로 자녀를 우선함, 순위설정이 필요, 순위 설정 실패, 순위를 변경함이 확인되었는데 기혼여자 대학원생들인 참여자들은 기혼여성으로서의 가정역할, 대학생으로서의 학생역할과 그 외의 다른 역할들의 비중과 순서를 정하기를 시도하였다. 참여자들의 우선순위는 역할의 비중, 시간, 체력의 소모정도에 따라 비중이 높은 것을 먼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체력의 소모정도가 높은 역할은 나중에 수행하거나 역할수행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였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는 일을 하나 접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내 지혜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교통정리 해야죠..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차피 공부라는 게 심도 있게 해야지 시간 다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 불성실해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참여자 5).

(2) 대체인력 구하기

하위범주로 가정을 위한 전략모색, 역할 대체자의 물색, 심리적인 편안을 추구함, 한시적인 지원을 받음이 확인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동시에 수행해야 할 여러 역할들 중 몇몇 역할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여 해결하였다. 대체 인력은 역할의 비중, 소요되는 시간, 경제적 상태, 체력의 소모정도에 따라 도우미를 활용하고 일시적으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친정부모 혹은 시부모에게 전담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이가 자주 아프다거나 그러면 신경이 쓰이긴 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아파도 나는 수업에 가야 하니까 아줌마 혹은 엄마가 아픈 아이를 전담하게 되고 아니면.. 아줌마를 두고 있으니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요.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학교를 갈 때는 무조건 아줌마가 와 줘

요.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참여자 8).

(3) 시간 조절하기

할 일을 계획함, 시간을 조정함, 일정표를 만들어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역할수행에 투입이 가능한 시간 또는 시기를 정해 역할완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역할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정리하거나 해결하고, 역할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아 그것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역할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 애들도 동의하게 되죠..신랑한테도. 이주의 주말은 약속잡지 말아라. 시간없다. 나 도서관 가야 한다. 미리 미리 해놓고선... 제가 며칠 때 미리 말하는 편이에요. 머하기 전에 양해를 구해놓죠. 그답에 차질이 없게 계획을 세워 놓은 답에 해야지. 미안한 맘도 덜 생기고, 가족도 그만큼 준비할 시간도 있죠. 아주 시간 안배를 잘하고(참여자 5).

6) 결과

(1) 소진하여 포기함

신체적으로 소진됨, 소홀한 역할에 대한 미안함, 선택에 대한 후회, 건강문제가 발생함, 자녀의 문제행동이 발견됨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대학원진학에 의해 발생한 학생의 역할과 기존의 다른 역할들이 충돌을 일으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진됨을 경험하고 역할에 대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생각으로 대학원 진학이라는 선택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내가 잘하지 않는 것의 죄책감이 동시에 들면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못된앤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 모든 이런 생각들이 너무 억울하고....피한방울 안 섞인 식구들과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젊음을 이곳에서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억울하지..왜 내가 저런 시어머니랑 살면서 맘고생해야 하는가. 남편한테 눈치하고 시어머니한테 죄책감들고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고 시어머니가 미워지는 것도 죄책감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가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깐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으로는 정말 나를 이렇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참여자 9).

(2) 양가감정으로 갈등함

긍정적으로 생각함, 자부심을 가짐, 죄책감이 생김, 미안함을 느낌, 불안을 느낌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전통적으로 기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들에 충실하지 못함에 따라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대학원 과정동안 남편과 자녀로부터 자신이 배려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돌봄에 소홀함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는 반면, 별 문제없이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과 남편이 잘 견디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자녀 혹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부심과 어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껴 학업을 지속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해 갈등하였다.

여자가 대부분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해야 하니깐 가장 미안하단 죄책감이라고 해야 하나? 양가 감정이겠네요..한편론 정말 미안하고 다른 엄마들을 만났다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말 제철과일이나 음식..등을 챙겨 줬을텐데...나는 세끼 밥 먹고 아프지 않고 나의 시간을 안 뺏아주면 고마운데 그게 불쌍하고 안쓰러운 반면..나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가족은 이것만큼 밖에 못하니 이런 서운한 마음에 그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참여자 5).

그답에는 내가 강의를 해도 되고 풀타임으로 어디 학교에 들어간단든지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간단든지 하는 것도 힘들어요. 박사. 박사까지 나오면 뭐 어디 취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미래에 대해 확고한 게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참여자 3).

(3) 천천히 병행함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 성취감을 느낌의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한 학

기를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만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다. 가능한 한 가족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결국 서두르지 않고 학업과 가정 돌봄을 천천히 병행하고자 하였다.

세월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성숙 했구나 제가 그게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남편한테 박사과정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학술대회를 하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80%였는데 지금은 알아듣는 게 50%여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들죠(참여자 3).

글쎄 그런데 나 같은 상황에서도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면 힘들죠. 빨리 끝내야하는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상황에서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길게 안하지. 남편이 안도와주는 것을 막 애걸복걸 애달아하면서 막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삶의 만족만 떨어뜨리지 얻을게 하나도 없고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목표 수위를 낮게 잡고 길게 가져라(참여자 1).

2. 핵심범주: ‘자기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의 이론

본 연구에서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경험과정의 핵심범주는 ‘자기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로 나타났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생성의 욕구와 여성의 사회활동을 수용하는 사회적 상황이 원인이 되어 대학원진학을 선택함

Table 1. Multiple roles experience of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

| | Themes | Sub-themes |
|-----------------------|------------|--|
| Causal condition | 자기생성의 욕구 | 학문선호, 미래에 대한 투자, 자기발전, 자신의 길에 대한 욕심 |
| | 여성상 변화의 수용 | 남아선호사상의 탈피, 여성 사회참여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여성 사회진출 허용 |
| Phenomena | 역할기대치 조정하기 | 완전을 추구함, 주부역할 요구, 학생의 역할 요구, 시간의 절대부족, 자녀양육 역할 요구, 병행의 모미 |
| Contextual condition | 자녀의 성장단계 | 자녀의 독립성, 자녀에 대한 육아부담, 자녀연령의 변화, 자녀의 방해 |
| | 건강상태의 인식 | 힘든 경험, 지치고 소진된 느낌, 신체적으로 피곤함, 체력이 나빠짐을 인식함, 질병이 생김 |
| Intervening condition | 학교의 배려 | 교수의 이해 없음, 동료들의 지지, 서먹한 동료관계 |
| | 가정 내 지원 | 지지적인 남편, 남편의 방관적 태도, 남편이 되어주는 남편, 친정의 지지, 도와주지 않는 친정, 시댁이 양해해줌, 친정과 시댁의 협조 |
| | 재정적 지원 | 경제적인 어려움,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
| Actions/ interaction | 우선순위 매기기 | 자녀를 우선함, 순위설정이 필요, 순위설정 실패,순위를 변경함 |
| | 대체 인력 구하기 | 가정을 위한 전략모색, 역할 대체자의 물색, 심리적인 편안을 추구함, 한시적인 지원을 받음 |
| | 시간 조정하기 | 할 일을 계획함, 시간을 조정함, 일정표를 만들 |
| Consequence | 소진하여 포기함 | 신체적으로 소진됨, 소홀한 역할에 대한 미안함, 선택에 대한 후회, 건강문제가 발생함, 자녀의 문제행동이 발견됨 |
| | 양가감정으로 갈등함 | 긍정적으로 생각함, 자부심을 가짐, 죄책감이 생김, 미안함을 느낌, 불안을 느낌 |
| | 천천히 병행함 | 학업지속에 대한 의지, 성취감을 느낌 |

으로써 역할기대치 조정하기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자녀의 성장단계와 건강상태의 인식정도에 따라 역할의 강도와 비중의 높낮이, 시간적인 순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고 가정의 지원정도, 학교의 배려, 재정적 지원에 따라 역할대체, 역할포기, 역할완수로 수행정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녀를 둔 기혼여자 대학원생은 수행할 시점에서 역할기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대체역할 인력을 모색하기도 하고 반드시 스스로 완수해야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중역할간의 균형을 맞추기에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소진을 경험하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대학원 선택에 대한 지속적인 양가감정을 느끼면서 갈등을 경험하기 하였지만 스스로 만족감을 경험하면서 다중 역할 간의 역할균형 맞추기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병행하기를 결정 하였다.

3. 유형분석: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경험과 정 적응유형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기혼여성의 다중역할 경험과정인 ‘자기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는 3가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역할 기대치 조정하기’ 현상은 자녀의 성장

단계, 건강상태와 같은 맥락적 조건과 가족지원 정도와 학교의 배려 정도 그리고 재정적 지원의 중재적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 매기기, 대체 인력 구하기, 시간 조절하기의 적절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 다중 역할 간의 역할 균형 맞추기 과정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학업 지연형, 학업 성취형, 병행 조정형으로 유형화되었다.

IV. 논 의

Erikson(1988)은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으로 규정하고 이 시기에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사람은 중년기로 이행하면서 생성감 대 침체감(Generativity vs. Stagnation)의 위기를 잘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생성감(Generativity)은 다음세대를 낳고 이들을 지도하는데 대한 관심을 뜻하며 ‘생산성’과 ‘창조성’의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 이는 전통적으로는 여성이 자녀를 낳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시켜 사회적 전통을 전수시키며 가치관을 전달해주는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예술적 업적획득과 자신의 학문적인 성취를 통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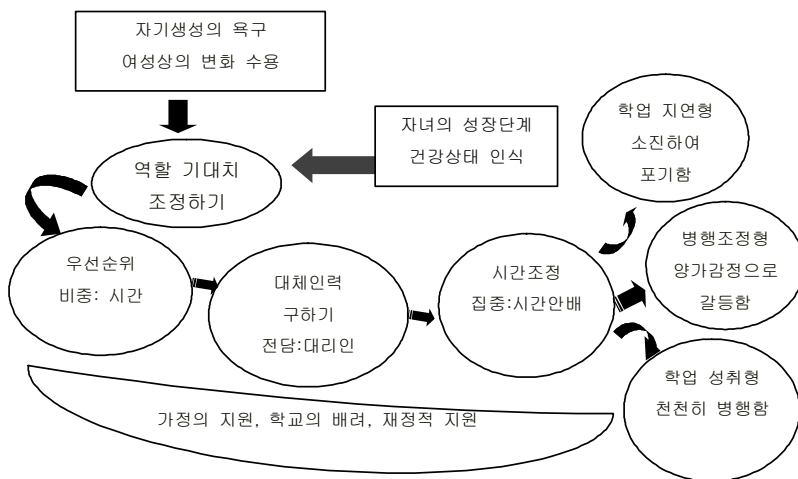


Fig. 1. Multiple roles experience process of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

기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획득을 위해 취업, 학업을 선택할 때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성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제약은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다중역할 수행과정에서 갈등과 긴장감을 유발한다(Park, 2005; Lee, Yoon, Lee, Hwang, Moon, & Cho, 1996).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기생성의 욕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얻게 된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 기대치 조정하기'를 시도하였다. 즉 자녀의 성장단계, 자신의 건강상태와 같은 맥락적 조건과 가족지원 정도와 학교의 배려 정도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정도의 중재적 조건을 점검하였다. 이는 36세 이상 기혼여성들이 취업 시에 기존의 가족기능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자신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발하려고 한다고 보고한 Kim과 Kris(2000)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우선순위 매기기, 대체인력 구하기, 시간조절하기와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세움으로써 여러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Park과 Liao(2000)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전문직 종사는 매우 특권적인 경험이지만 직업과 가족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사 일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훌륭한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역할 기대를 충족하고자하는 욕구와 대학원진학에 따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학업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하는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감수함으로써 극심한 신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긴장을 경험한다. Napholz(2000)은 미국 인디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 갈등, 가족에 대한 죄의식, 죄의식의 관리,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의 전이, 그리고 침묵을 깨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부 주제를 잡고 직장, 가정, 자기(self)의 역할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심 주제로

잡았다. 이 연구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디언 여성은 전통에 대한 대항보다 가정과 지역사회 지원을 받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나(self)를 발전시키고 인디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재전통화(re-traditionalization)노력을 시도하였다. 즉 여성들이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충돌 속에서 생존을 위해 또는 자기 생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동기와 문화적 기대와 사회적 상황의 요소를 고려한 상호작용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전략 결과를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는데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경험하여 일시적인 학업을 포기하는 학업 지연 형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전략을 재구성하면서 양가감정을 느끼며 갈등하는 병행조정 형 그리고 학업 이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업의 진행속도를 늦춰서 병행하고자 하는 학업성취 형이었다. 그러나 Ellen(2003)이 성인 학습자의 다중역할은 상황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Skouras(2002)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기혼의 학생들은 유용한 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이 되는 가정, 학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역할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활용할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중역할의 완수가 불가능한 채 한 두 가지 역할을 희생해야만 하였다. 반면에 충분한 시간, 대체인력, 재정적 지원은 역할수행을 위한 긴장감을 줄이고 역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작용/상호작용전략을 재구성하여 다중역할을 결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역할들의 결합정도는 역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Menagan, 1989)으로 나타나 기존에 다중역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중역할 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역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학설을 입증한다(Lobel, 1991). 즉 개인이 역할들에 부여하는 가치의 일관성에 의해서 진정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역할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다중 역할 간에 조화를 이룸으로써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역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 전문직의 진출 증가와 관련되어 석·박사학위를 시작하는 기혼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역할과중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어렵게 시작한 학위과정을 포기하거나 전문직 진출의 목표를 수정하는 결과들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대학원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요소인 동시에 최고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좌절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박사학위 이상의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기생성을 위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여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역할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건강상태, 사회경제적인 상태와 시간을 고려한 우선순위 매기기, 대체인력 구하기, 시간 조정하기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역할간의 균형을 맞추어 학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Thomson, Beauvais과 Lyness (1998)는 전문직 여성의 역할 간 갈등을 감소하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시간에 대한 강조를 완화하는 것, 둘째 휴가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과 셋째, 상사의 직장인 이외의 역할에 대한 배려이었다.

이상에서 우리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성 역할 기대와 제약은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자기생성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혼여성의 다중역할 수행과정에 갈등을 유발시키며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로 인해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건강을 위협한다. 따라서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 고급 인력의 양성과 이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여성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서구의 가치관이 혼재된 현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둔 여성 대학원생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녀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 작용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는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에 대

한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자녀를 둔 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의 중심현상과 이에 대한 행동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실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하면서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하여 개방코딩에서는 근거자료의 범주화를, 축 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을 그리고, 선택 코딩에서는 핵심범주를 발견하였고 최종적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의 여자 대학원생 11명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경험과정은 ‘자기생성을 위한 역할 균형 맞추기’이었다. ‘자기생성의 욕구’와 ‘여성상 변화에 대한 수용’의 인과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 다중역할 수행 경험은 ‘역할기대치 조정하기’를 중심 현상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의 맥락적 조건과 ‘가족의 지원정도’와 ‘학교의 배려’, ‘경제적인 상태’등의 중재적인 조건의 개입에 따라 ‘우선순위 매기기’, ‘대체인력 구하기’, ‘시간 조정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소진하여 포기함’, ‘양가감정으로 갈등함’, ‘천천히 병행함’ 등이 나타났다. 이로서 자녀를 둔 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은 중년을 바라보면서 자기생성을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영향요인을 조절하고 제한된 시간과 환경 조건 속에서 다중역할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책임을 완수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학위과정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자녀를 둔 여성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에서 나타난 각 조건과 변수들 간의 관계연구와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진술에 대한 가설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연구에서 다중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유형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References

- Corbin, J. M. (2004). *Corbin's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workshop*. Seoul: Kore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Center.
- Ellen, E. Fairchil. (2003). Multiple roles of adult learners. *New directions for students services*, 102, 11-16.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Jeong, Y. K. (2006). A study of sense of balance in work-family and the availability/demand of support of married working women. *J Korean Home Manage*, 24(2), 107-118.
- Jun, S. H. (2000). Women's multiple roles and stress. *J Korean Assoc Health Med Sociol*, 8(1), 5-30.
- Kandel D. B., Style, C. B., & Hughes, M. D. (1990). The effect of marriage on the well-being of adults. *J Fam Issues*, 11, 4-35.
- Kim, C. & Kris, K. (2000). Juggling multiple roles and the act of resistance. *Contemp Family Therapy*, 22(2), 233-240.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0). Data of STAT-KOREA.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1). *Statistical yearbook on women*.
- Lee, J. S., Yoon, K. G., Lee, H. J., Hwang, S. S., Moon, M. S., & Cho, J. M. (1996).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octoral course students' process of getting out from bugeum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5(1), 67-82.
- Lobel, S. A. (1991). Allocation of investment in work and family roles: alternative theories and implications for research. *Acad Manage Rev*, 16(3), 507-521.
- Marks, S. T., Huston, E., Johnson & MacDemid, S. (2001). Role balance among white married couples. *J Marriage Fam*, 63(4), 1083-1098.
- McLanahan, S. J. Adams.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Sociol*, 13, 237-257.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3). www.std.chedi.re.kr.
- Morse, J. M. (2005). *Ethnography and issues in mix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esign*. Seoul: Korea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Center.
- Napholz, Linda. (2000). Balancing multiple roles among a group of urban midlife American Indian working women. *Health Care Women Int*, 21(4), 255-266.
- Nerad, M., Armstrong, Gupta, D. (2002). *Graduate women's expectations in doctoral programs and beyond: marriage, family, and care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dwestern Association of Graduate school, Springfield.
- Park, J. H. (2003).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of east asian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and American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related to gender role resocialization of east asian married women graduate students. *J Korean Home Econ Assoc*, 4(6), 29-45.
- Park, J. H. (2005).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rking mothers' roles gratification and strain,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J Korean Home Manage*, 23(6), 117-131.
- Park, J., Liao, T. F. (2000).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ions: role changes a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Sex Role*, 43(7-8), 571-589.
- Ryu, N. S. (1998). *Analytic study about married women school teachers' role confli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Skoura, T. John. (2002). *Graduate education: needs, accommodations, and levels of service for adult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ohnson & Wallis University, Miami.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
- Thompson, C. A., Beauvais, L. L., & Lyness, K. S. (1998). When work-family benefits are not enough: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ulture on benefit utilization,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work-family conflict. *J Vocat Behav*, 54(3), 392-415.
- Yoon, M. J. (2003). *Multiple roles' effectiven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managerial skill for managerial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